손흥민 2골·류현진 무실점…한가위 '선물'

손흥민

EPL 3경기만에 시즌 1·2호골
평점 9.4…최우수선수 선정
차범근 한국인 유럽리그 최다골 -3
토트넘, 펠리스에 4-0…리그 3위로

손흥민의 올시즌 리그 첫 골이 3경기만에 터졌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19-20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10분 올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중앙수비수 토비 알데르베이럴트가 길게 찔러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받은 뒤 중앙으로 이동하며 왼발 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어 2-0으로 앞선 전반 23분 왼발 발리슛으로 멀티골을 작성했다.

팀 동료 세르주 오리에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통산 4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으며 크리스탈 팰리스 킬러임을 입증했다.

이날 경기에서 만점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Man of the Match)에 뽑혔다.

2골을 추가하며 유럽 통산 118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차범근의 한국인 최다골(121골)에 3골차로 다가섰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원맨쇼'에 힘입어 4경기 만에 리그에서 승리(4-0)를 거두며 승점 8점으로 리그 단독 3위에 올라섰다.

오랜만의 득점이지만 예년의 페이스와 비교하면 손흥민의 시즌 첫 골은 이른 편이다.

손흥민의 2018-2019시즌 첫 골은 지난해 11월 1일 카라바오컵(리그컵)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골)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뛰어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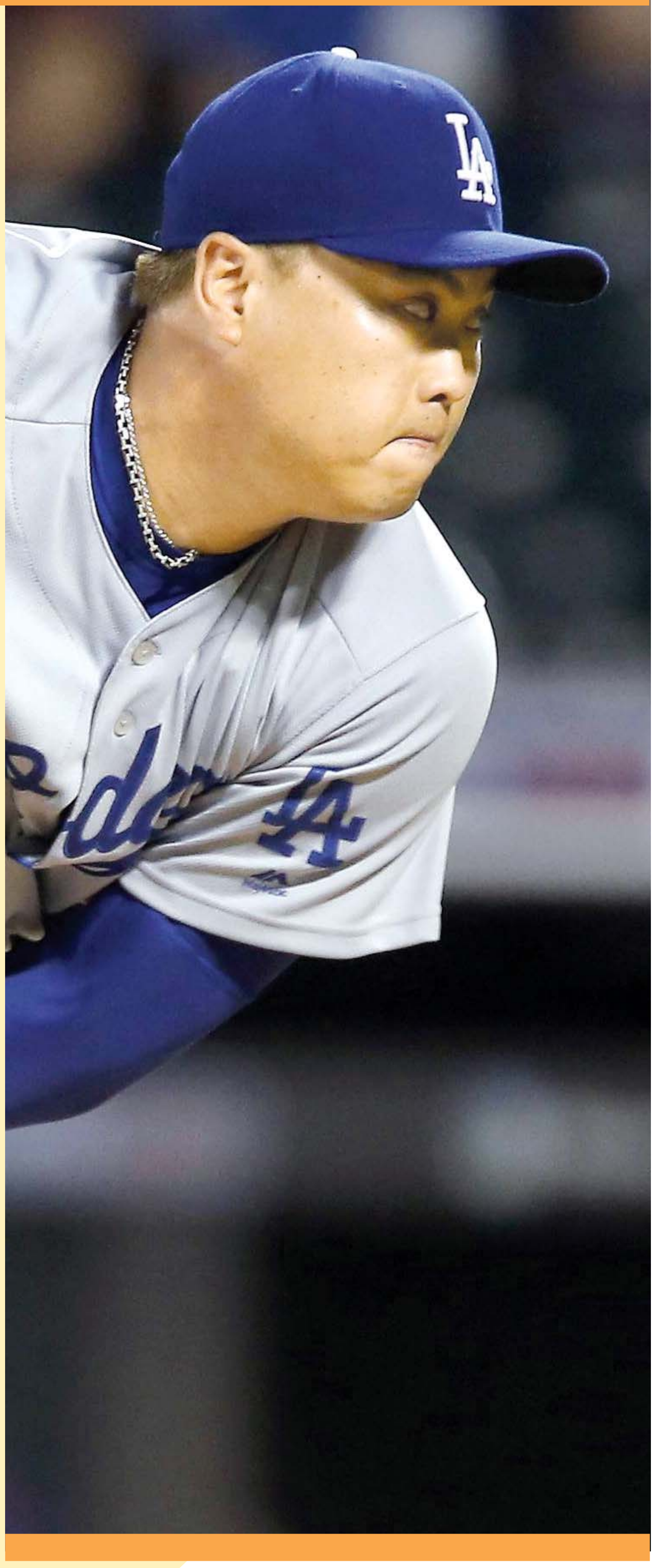
이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선발라인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출장 기회가 적었던 터라 개막 이후 10경기 만에 첫 골을 터트릴 수 있었다. 정규리그 첫 골은 지난해 11월 25일 첼시와 13라운드 홈 경기에 가서야 터졌다.

이후 손흥민은 12월에만 7골을 터뜨리는 등 '몰아치기'로 빠르게 득점을 쌓은 끝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2골을 포함해 20골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아시안컵까지 참가하는 등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는 혹독한 일정 속에서 이룬 성적이라 더 의미가 컸다.

손흥민의 2017-2018시즌 첫 골은 5번째 경기였던 도르트문트(독일)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기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류현진



34일만에 메츠전 7이닝 호투
6년만에 규정이닝 돌파
사이영상 경쟁자 디그롬과 투수전
방어율 2.45→2.35…13승은 실패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약속의 땅' 뉴욕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류현진은 15일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무실점 역투로 평균자책점(ERA)을 2.45에서 2.35로 다시 낮췄다.

안타는 2개만 내줬고, 삼진은 6개를 잡았다. 볼넷은 허용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0-0인 8회 초 타석에서 에드윈 리오스로 교체돼 5번째 도전에서도 13승을 얻지 못했다. 팀은 0-3으로 졌다.

류현진은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부활과 평균자책점 하락이라는 선물을 안았다.

최근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95로 부진했던 류현진은 메츠전을 계기로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류현진이 실점을 남기지 않은 건 7이닝 무실점으로 12승째를 수확한 8월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 이래 34일 만이다. 류현진은 또 올해 168.2이닝을 던져 빅리그에 데뷔한 2013년(192이닝) 이래 6년 만에 규정 이닝(162이닝)을 돌파했다.

특히 류현진은 메츠의 홈인 시티필드에서 이날까지 통산 4차례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00을 올리는 등 메츠를 상대로 통산 4승 1패, 평균자책점 1.20이라는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 도전하는 메츠 선발 제이컵 디그롬도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며 실점 없이 평균자책점을 2.61로 끌어내리고 투수전의 백미를 선사했다.

재정비를 거치느라 열흘 만에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신예 윌 스미스가 아닌 베테랑 포수 러셀 마틴과 호흡을 맞췄다.

정확한 제구로 1회부터 안정감 넘치는 투구를 이어간 류현진은 2회 윌슨 라모스까지 5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웠다.

라모스의 타구에 허리 쪽을 맞았지만, 굴절된 타구를 잡은 1루수 맥스 먼시가 재빨리 1루를 찍어 타자를 잡았다.

류현진은 2회 투아웃 후 로빈슨 카노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토드 프레이저를 좌익수 직선타로 요리했다. 3회에도 2사 후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의 땅볼 때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아냈다.

류현진은 3회 마지막 타자 J.D.데이비스부터 7회 라모스까지 13명의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고 '괴물'의 재림을 알렸다.

특히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47개)를 달리는 메츠 4번 타자 피트 알론소를 세 번 모두 범타로 엮어 호투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군계일 양(현종)… KIA 마운드를 어이할꼬

양현종

최근 7경기 1승 6패…양현종 제외 모두 선발패
윌랜드·터너 부진…외국인 듀오 첫 동반 10패
선발 대량 실점→ 야수 실책 도미노에 졸전 거듭

KIA 타이거즈의 선발 구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는 최근 7경기에서 각기 다른 선발을 내세워 마운드 싸움을 벌였다.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두 외국인 선수 터너와 윌랜드 그리고 이민우, 임기영, 김기훈, 강이준이 선발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결과는 1승 6패. 양현종이 유일한 승리투수였고, 남은 6경기에서는 모두 선발패가 기록됐다.

올 시즌은 물론 내년 시즌 선발진 구상에서도 양현종만 확실한 상수(常數)다.

양현종은 11일 롯데 원정경기에서 개인 통산 4번째이자, 올 시즌 개인 두 번째 완봉승을 만들어냈다.

8월 4일 99구의 완봉승을 만들었던 양현종은 이번에는 단 86개의 공으로 실점 없이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경기가 4-0 승리로 끝나면서 KIA는 사직 6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현종을 제외한 6명의 선발진의 성적과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6명의 선발진은 27.1이닝을 책임지면서 28점을 줬다. 이 중 자책점은 24점, 선발 6명의 평균자책점은 7.90에 이른다.

터너(6이닝 6실점·5자책점), 임기영(6이닝 3실점), 윌랜드(7이닝 5실점·3자책점)가 6회 이상은 책임졌지만 불안한 출발로 경기 흐름을 내줬다.

세 선수의 실점이 모두 초반에 집중됐다.

1회를 4실점으로 연 터너는 2회에도 2실점을 했다. 임기영도 1회 3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다. 윌랜드는 1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넘겼지만 2회 연속 안타로 3실점을 했고, 3회에도 2점을 더 줬다.

최근 7경기 KIA의 실점은 46점이고, 선발진이 3회까지 준 점수가 26점에 이른다. 선발들의 기싸움에서 밀리면서 패배가 쌓인 모양새다.

윌랜드

터너

또 윌랜드가 이번 등판으로 시즌 10번째 패배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듀오의 첫 동반 10패라는 씁쓸한 기록도 만들어졌다.

위력적인 피칭으로 연승을 달렸던 터너는 한 턴을 쉬고 나온 뒤 다시 불안한 출발을 하며 7승 12패의 전적을 기록하게 됐다.

선발진의 초반 난조 속 야수진의 실책 퍼레이드도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최근 7경기에서 야수진은 15개의 실책을 쏟아냈다. 황윤호와 박찬호가 각각 4개의 실책을 기록했고, 문선재(2개), 백용환, 김주찬, 고장혁, 이창진도 실책란에 이름을 올렸다. 내·외야에서 고루 실책이 기록되는 등 KIA는 허술한 선발진과 최악의 수비력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57승 2무 76패, 승률 0.429라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졸전들이라는 점에서 더 뼈아픈 패배들이다.

성적도 잡지 못했고, 미래 구상도 불투명해지면서 KIA는 최악의 시즌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남은 9경기에서 팬심을 달래고 2020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